평양-개성 고속도 수해로 파손

북한 당국자 "정상회담 이전 복구 다그치는 중"

노무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이용할 예정인 평양-개성 고속도로가 이번 수해로 파손돼 차량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북한 당국자가 밝혔다.

북한 당국이 평양~개성 고속도로가 수해를 입었다고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박정순 부국장은 20일 조선중앙방송에 출연해 이번 폭우로 인한 도로피해 상황을 설명하며 "평양-향산 관광도로, 평양-원산 관광도로, 평양-개성 고속도로들에서 구조물들이 파괴되고 도로노반이 파괴돼서 지금 현재 자동차 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개성에서 이뤄진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 때 북측 관계자들은 평양~개성 고속도로 상황에 대해 "평양에서 올 때 이용했는데 침수되지 않았으며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으며, 북측은 지난 18일 정상회담 연기를 요청하면서도 평양~개성간 고속도로 피해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남측의 민간 대북지원 단체 관계자들은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에 하루 앞서 13일 개성에서 북측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평양과 개성간 고속도로 일부가 유실돼 차량들이 특정 구간을 우회했으며 운행시간도 기존의 2배가 넘는 6시간 가량 걸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었다.

북한의 박정순 부국장은 "지금 평양-원산 관광도로와 평양-개성 고속도로들에 일꾼(간부)들이 내려가서 제기된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군중들을 발동하고 지금 도로복구 사업을 다그치고 있다"고 말해 평양~개성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도로의 복구에 주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4일로 연기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이전까지 평양~개성 고속도로의 복구가 가능할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 서성우 정보분석본부장은 "평양-개성 고속도로는 아스팔트가 아닌 콘크리트 도로여서 복구가 상대적으로 쉽고 북측이 인력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나서는 만큼 정상회담 이전에는 정상 운행이 가능한 정도로 복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을지연습 계속 땐 강한 대책 취할 것"

북한 외무성 대변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0일 시작된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을 거론하면서 "강한 대응책"을 취할 것이라고 21일 말했다.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에서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다"며 "미국이 뒤에 돌아앉아 대화 상대방을 반대하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계속 일삼는다면 우리도 지금까지 견지해온 대화 입장과는 별도로 강한 대응책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그러나 '강한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북한 외무성의 이러한 발표에 따라, 특히 북한과 미국이 내주 제네바에서 가질 예정인 양자간 관계정상화 실무회의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UFL연습은 실제 병력과 전투 장비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장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는 한미 양국군의 지휘소(CPX) 연습이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정상회담 차기정권에 넘겨라"

청와대 "오만한 발상" 비난

청와대는 21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10월초로 연기된 남북정상회담을 차기정권으로 미뤄줄 것'을 공식 요구한 데 대해 반박 글과 특별기고 등을 총동원, 강한 어조로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홍보수석실 명의로 올린 '한나라당은 먼저 국가의 미래부터 생각하라'는 글을 통해 한나라당의 정상회담 연기 주장은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좌지우지하고 국가체계를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는 "상식적으로 정상회담 연기 요구가 남북관계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모양이 될지 생각해봤는가"라며 "한나라당 집권이라는 당리당략 말고 국가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고 하는 얘기인가"라고 되물었다.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이수훈 위원장도 이날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특별기고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대선용'이란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 "불필요한 정국혼란을 야기하고 국론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은) 왜 그렇게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인지, 진정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인지, 모든 것을 대선 유불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탈레반 대변인 자처 2명 대면협상 조건 서로 달라

탈레반 대변인을 자처하는 인물 2명이 16일 이후 답보상태인 한국 측과 대면협상을 놓고 서로 다른 '톤'의 목소리를 동시에 냈다.

카리 유수프 아마디는 20일 아프간 이슬라믹프레스(AIP)에 "(수감자를 석방하지 않는다면) 대면협상이 없다고 탈레반 사령관 압둘라 잔이 말했다는 보도는 탈레반의 공식입장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그는 "탈레반은 인질 문제를 대화로 풀기 원하며 대면협상을 더 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압둘라 잔이 그런 말을 했다면 개인적인 의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압둘라 잔은 지난달 19일 한국인 납치를 주도한 가즈니주 카라바그 지역의 탈레반 사령관으로 알려졌으며 탈레반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지도자 위원회로부터 '언론에 나서지 말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다.

아마디는 탈레반 지도자 위원회는 인질 문제에 대한 권한을 가진 유일한 주체며 대면협상의 문이 개방돼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아마디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도 "애초 오늘 대면협상이 열릴 수도 있었으나 절차상 문제로 내일(21일)로 연기됐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이번 인질 사건 이후 종종 언론에 입장을 표명해 온 탈레반의 '제2의 대변인'격인 자비훌라 무자히드는 같은 날 아마디보다 강경한 발언을 했다.

그는 20일 AFP통신에 "한국은 인질이 해를 입는 다면 그들의 석방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임을 알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인질 석방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전화통화로 위협했다.

무자히드는 "오늘(20일) 한국 측과 전화접촉을 했는데 한국 측이 시간을 더 요구했다"며 "한국 측이 아프간과 미국 정부를 설득중이라고 전화로 말했지만 설득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탈레반은 공식적으로 대변인을 2명 두고 있는데 아마디는 아프간 남부와 동부, 남동부 지역 조직을 담당하고 무자히드는 서북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인질 사건은 아마디의 담당지역이며 아마디가 대변인 직책을 더 오래 맡아 신뢰도가 높다는 게 현지 언론인들의 의견이다.

AFP통신은 아울러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탈레반이 몸값 제의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두바이=연합뉴스

저기가 북녘땅 동해안에서 휴가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가 21일 오후 동해안 최북단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를 방문, 쌍안경으로 주위 풍경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한나라당 경선이 범여권에 주는 메시지

임동욱
서울취재팀장

한나라당 경선이 이명박 후보의 승리로 끝났다. 강력한 경쟁자였던 박근혜 후보보다 2천452표를 더 얻은 1.6% 차의 신승이었다.

이 후보는 당선 직후 빨셈이 아닌 '덧셈의 정치'를 통해 정권 교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후보에게는 정권 교체에 중심적 역할을 해줄 것도 요청했다.

최초 여성 대통령의 꿈을 위해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던 박근혜 후보는 깨끗하게 패배를 승복했다. 그는 승리한 이 후보에게 정권 교체에 반드시 성공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선언했다.

유례없는 치열한 백병전이 펼쳐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경선 후유증을 예상했던 정치권의 관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오히려 극적인 승리와 깨끗한 승복에 국민 여론은 한나라당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다.

경선 직후 실시한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50%대를 넘어서 60%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지지율은 60%를 넘어섰다. 경선 이후 이 후보의 지지율은 무려 20%포인트 이상 상승했으며 당 지지율도 두 자리 수 이상 급등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격적인 경선을 앞두고 있는 범여권에 한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그것은 백의종군의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라는 것이다. 현재 민주 신당과 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대선 출마에 나설 주자들은 20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분열의 정치에 대한 통렬한 반성보다는 정치적 입지를 위해 너도나도 대권 출마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이를 반영하듯 범여권 예비 대선후보들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는 50% 이상이다. 불과 넉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생각하면 범여권으로서는 암담한 상황이다. 이 점에서 범여권 예비후보들에게는 경선 참여에 앞서 민주·개혁 세력의 정권 창출을 위한 백의종군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그들이 백의종군의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경선에 참여, 이전 투구를 벌인다면 범여권의 정권 창출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면 자신의 마음부터 비우라는 말이 있다.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범여권 주자들이 백의종군의 자세로 먼저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점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tuim@kwangju.co.kr